

<야곱의 터닝 포인트> - 창 32:24-32

1. 야곱의 위기 극복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야곱의 여정은 너무나도 험난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위협을 받았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니 다시 형인 에서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노렸지만,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는 먼저 두 아내와 몸종들,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을 납복 나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까?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불안한 상황에서 그가 홀로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가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결국 그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는 원래 매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25:26),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움직일 수 있는 우물 아귀에 있는 큰 돌을 라헬을 위하여 혼자 옮길 정도였습니다(29:10).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위하여 20년간 일하며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 여건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은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느끼고 **허벅지 관절**, 즉 엉덩이뼈를 찢었습니다. **엉덩이뼈는 신체를 지탱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니 야곱은 온몸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필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가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비로소 영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평생 남의 등쳐먹고 살았던 자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밝히며, 자기 형을 속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이름을 ‘하나님이 싸웠다.’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그의 과거의 비열한 행위를 상기시킨다면,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여태껏

그는 하나님을 어렵פות이 알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하나님께 축복받고 나서야 자신과 씨름하고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대면한 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2. 간절하게 기도하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그리고 위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한 줄 요약 :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것인데, 그 때 우리가 먼저 해야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만물이 주님 앞에> - 창 41:25-38

1.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당대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 뿐 두 가지 꿈에 의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 중 단 한 사람도 바로가 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몽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해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꾸 꿈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정작 꿈을 꾸 바로가 이들의 해몽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가 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복직된 술 밑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고, 바로에게 말하여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낼 자로 여겼으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해몽하여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15~16절).

사실 바로가 꾸 꿈은 두 가지이지만,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차 일어날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지혜와 지식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로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에 곧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사람도, 돈도, 명예도, 과학과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끝까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줄 요약 : 결국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헛되며,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앞서 보내셨음이라> - 창 45:1-8

1. 요셉의 고백

① 서운덕목사님과 하정훈 목사님 ② 저와 김재경전도사님, 우제윤전도사님 이 두 조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 곳에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보내주셨다는 것 등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후발주자를 위하여 선행주자를 보내셔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앞 장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형들은 도저히 베냐민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는 그들

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행동과 다르게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 베냐민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두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매우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그들의 동생으로 돌아가 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것,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야곱의 온 가정이 애굽에 내려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도 인간인데 20년 동안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와 타국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며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 :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전히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부르시는 하나님> - 출 3:1-12

1.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자가 되어 양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덤불로써 보잘 것 없는 나무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중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불같은 시련을 겪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며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주시고자 이렇게 명하십니다. ‘거룩’은 인간의 죄성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이며 동시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이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정답, 인생의 유일한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고, 동시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것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2.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개인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반드시 모세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면, 특히 연초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 :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참고문헌>

1. BKC 강해주석
2.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 ESV 스터디 바이블
4. NIV 적용주석
5. 현대성서주석
6. HOW 주석
7.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8. NICOT
9. QA시스템 성경연구